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생산적 아버지노릇 : 척도 개발 연구

Development of the Generative Fathering Scale

전북대학교 생활과학대학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이영환

강사 이진숙

경희대학교 가정대학 아동·가족·주거환경학과

교수 조복희

Dept. of Home Management, Chonbuk National Univ.

Associate Prof. : Yee, Young Hwan

Lecturer : Lee, Jin Sook

Dept. of Housing, Family & Child Studies, Kyunghee Univ.

Prof. : Cho, Bok Hee

● 목 차 ●

I. 서론

II. 이론적 배경

III. 연구방법

IV. 결과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the generative fathering scale to measure fathers' active involvement of parenting. Subjects were 188 fathers of early childhood from Jeonju. To begin with, the concept of generative fathering was discussed in the theoretical review, and then the measurement was comprised of two dimensions(the parental involvement of fathers and paternal responsibility)

- The parental involvement of fathers : thirty of 37 items were selected through the item analysis, and that 30 items were analyzed by factor analysis. The result of factor analysis indicated that the parental involvement of fathers comprised of three factors(developmental support, caregiving and monitoring, shared activities).
- paternal responsibility : this was analyzed through the same process above, two factors(responsibility as a resource provider and responsibility as a child-rearing)were extracted by factor analysis. The construct validity was supported and the internal consistency of this two sub-scale appeared to be at an acceptable level, and were considered to be useful way to measure generative fathering.

I. 서론

최근 가족구조 및 가치관의 변화와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등에 따라 아버지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가 증가하고 있으며, 오늘날 이상적인 아버지는 부양자역할 뿐 아니라 일상적인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아버지로 변화되고 있다. 그 동안 어머니 역할에 관심을 둔 연구들에 비해 아버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지만, 자녀의 삶에 미치는 아버지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아버지의 양육참여 및 양육행동에 관한 연구들이 활기를 띠고 있다.

아버지 관련 연구들에 의하면,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아동과 함께 하는 시간이 길지 않고 양육에 대한 관심이나 책임감도 어머니에 비해 저조한 편이라는 사실이 지적되고 있는 한편, 부족된 물리적 시간을 아버지가 아동과 함께 있는 동안 민감하고 적극적인 질적 반응을 함으로써 보충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정현희·최경순, 1995에서 재인용). 이제까지 아버지 연구의 대부분은 아버지의 양육참여 부족과 문제점에 초점을 둔 관점에서 접근함으로써, 자녀양육에 무관심하고 소극적인 아버지 모습을 그려온 것이 사실이다. Hawkins와 Dollahite(1997)는 이제까지 아버지에 대한 학문적 패러다임이 결핍 패러다임에 근거해왔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접근이 아버지의 부모역할 수행을 정확하게 기술할 수는 있었지만 좋은 아버지를 기술하는데는 실패했으며 따라서 더 좋은 아버지노릇을 이해하고 촉진할 수 있는 최선의 출발점은 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여러 연구들에 의하면, 대다수 아버지들은 자녀를 돌보고자 하는 바램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다(Gerson, 1997). 아버지의 근무시간으로 인해 아버지와 어머니간에 양육참여에서의 불균형이 나타나지만, 아버지들은 양적인 방법으로는 측정될 수 없는 중요한 방법으로 자녀양육에 참여하고 있다. 실제로 아버지의 참여가 항상 관찰될 수 있고 수량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오류일 수 있다. Palkovitz(1997)가 지적하듯이, 인지·정서적 참여의 경우 직접적으로 관찰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자녀를 직접 도와주기보다는 자녀로 하여금 어떤 것을 독

립적으로 행하도록 할 경우 부모의 참여가 감소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자녀와의 대화의 증가나 감독 등의 증가는 이전의 참여 수준을 보상하는 것 이상이 될 수 있다.

Palkovitz(1997)는 이제까지 많은 연구들이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있어서 현재 수행하는 것보다 더 많이 참여해야 한다고 가정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오히려 참여가 높을수록 항상 좋은 것은 아니며 '적절한 참여'가 더 바람직하다고 제안하였다. 즉 부모의 참여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more-in-better 모델을 넘어서서, 적절성에 기초를 둔 생산적인 참여모델, 혹은 긍정적인 참여모델을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기존의 아버지 양육참여 연구들에 대한 이러한 비판적 인식 및 대안적 개념화에 대한 주장은 아버지노릇(fathering)¹⁾을 Erikson(1950)이 제시한 생산성(generativity) 개념에서 재조명하는 일련의 연구들에서 나타나고 있다. Snarey(1993)는 에릭슨의 생산성 개념에 근거를 두고 '생산적 아버지노릇'(generative fathering)이라는 개념을 제안하면서, 이를 아버지와 자녀간에 지속적인 윤리관계를 형성·유지하기 위해 일함으로써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아버지노릇이라고 설명하였다. 이후 Dollahite와 동료들(1997) 등은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에 대한 보다 정교한 개념적 모델을 제안, 아버지노릇의 개념적 범위를 확장하였으며, Palkovitz(1997)는 동일한 맥락에서 기존의 참여(involverment) 개념을 확장하고 재구조화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에릭슨의 생산성 개념에서 재조명하여 자녀양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아버지의 바램과 능력을 인정하고, 좀더 폭넓은 관점에서 아버지노릇을 측정하고자 한 시도로 볼 수 있다. 아버지의 능동적인 양육참여가

1) 국내연구에서 fathering은 대부분 아버지역할로 번역, 사용되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fathering을 role이 아니라 work 로 개념화한 Dollahite와 동료들(1997)의 주장에 동의하여 '아버지노릇'으로 사용하였다(본고의 이론적 배경 참조). 양미경(1998)의 연구에서도 동일한 맥락에서 아버지노릇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보다 활성화되고 있는 사회적 흐름을 볼 때, 이러한 접근방식은 자녀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과 아버지 자신의 발달 등을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연구할 수 있는 이론적 진전을 가져왔다고 생각된다.

그 동안 국내에서도 아버지의 양육참여가 자녀의 제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연구들(이현숙, 1991; 최경순, 1992; 정현희·최경순, 1992, 1995; 김광웅·이인수, 1998)과 그러한 양육참여를 가져오는 아버지의 인구학적, 심리적 특성들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들(이화진, 1992; 허선자, 1992; 황길현, 1997; 김희주, 1997)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개념적 논의 및 측정도구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미흡하였으며, 특히 생산성의 맥락에서 아버지노릇을 고찰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²⁾ 따라서 본 연구는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에릭슨의 생산성 개념에서 재조명한 주요 연구들을 개관하고, 이러한 연구들에서 제안된 생산적인 아버지노릇 개념을 바탕으로 새로운 측정도구를 개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아버지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나아가 좋은 부모노릇을 하고자 하는 많은 아버지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생산적 아버지노릇의 선행연구 및 개념

Hawkins와 Dollahite(1997)는 이제까지 아버지에 대한 대중적 믿음과 학문적 패러다임이 결핍 패러다임(deficit-paradigm), 즉 대다수 아버지들이 아버지 역할에 무관심하고 무능하며 동기도 없다고 간주해 왔다고 지적하고, 대안적 관점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아버지의 참여시간 부족을 곧 아버지의 기능 부재로 해석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며, 아버지들은 단순한 양적 연구에서는 측정될 수 없는 가치로운 방법으로 자녀와 시간을 보내고 자녀의 건강한 발달에 기여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아버지노릇에 대한 역할-부적합 관점이 지나치게

아버지의 부적합성을 강조하며, 남성의 변화를 돕는데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역할-부적합 관점은 부모노릇을 남성의 삶의 중심에 놓지 않고, 아버지의 행동상의 부족을 양육에 대한 관심 부족을 나타내는 일차적 증거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으며, 아버지의 양육에 대한 편협한 표준을 갖고 있는 등 문제가 있으므로 남성의 개인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합한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많은 아버지들은 아버지노릇을 삶의 중심에 두고 자녀에게 강한 유대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자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한다. 최근의 많은 연구에 따르면, 대다수 아버지들이 자녀를 돌볼 바램과 능력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Coltrane, 1989; Lamb, 1979; Parke, 1981; Risman, 1986; Snarey, 1993 등; Gerson, 1997에서 재인용). 남성과의 심층면접 조사에 의하면, 평등한 부모이건 어머니의 조력자이건 간에 아버지들은 아동의 삶에 그 전례가 없을 정도로 깊이 참여하고 있었다(Gerson, 1997).

Palkovits(1997)는 역할-부적합 관점이 참여(involverment)에 대한 제한적이고 편협한 개념 정의에서 유래한다고 지적하고, 아버지 참여의 다양한 차원을 고려한 새로운 모델을 제안하였다. 또한 Dollahite와 동료들(1997)은 역할-부적합 관점에 대한 대안으로서, 아버지노릇을 사회적 역할(role)이 아니라 일종의 일(work)로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³⁾. 즉 아버지노릇을 남성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work)의 하나로 간주하고 '생산적인 일로서의 아버지노릇'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안하였다.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이라는 개념은 아버지노릇을 Erikson(1950)이 제시한 생산성(generativity) 개념에

2) 최근 양미경(1998)이 생산성의 맥락에서 아버지노릇을 연구한 바 있다.

3) 아버지노릇을 역할이 아니라 생산적인 일로 간주하면 어머니의 가사노동을 직업으로 주장하듯이 아버지의 양육 참여 역시 '직업'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임금노동과 무임 가정노동이 모두 아버지일의 개념 안에 포함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역할과는 다른 보다 역동적인 이미지- 의사결정, 문제해결, 창조성, 선택, 향상, 발달, 변화, 헌신 등 -를 창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서 제조명한 Snarey(1993)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는 에릭슨의 생산성 개념에 근거를 두고 '생산적 아버지노릇' 개념을 제안하면서, 이를 '자녀와 발달적이고 윤리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함으로써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아버지노릇'이라고 정의하였다. 즉 아버지는 자녀의 발달과정을 능동적으로 돌보아주기 위해 물질적, 정신적인 자원을 제공하는 양육생산성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이후 Dollahite와 동료들(1997)은 Snarey(1993)와 에릭슨의 관점을 '책임있는 아버지노릇'이라는 광의의 이론적 모델을 구성하는 출발점으로 사용하고,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에 대한 보다 정교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특히 이 개념에 윤리성을 부여함으로써 아버지노릇을 더 잘 개념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의 신체적·심리사회적 의존성, 물질적·시간적 희소성, 체계적 변화와 혼동된 변화, 가족구성원간의 대인적·정서적 상호의존성이라는 기본적인 조건과 제약에 직면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이러한 조건·제약으로부터 생산적인 아버지일의 네 가지 개념적 범주를 도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생산적인 아버지일에는 윤리적 일(ethical work), 관리하는 일(stewardship work), 발달적 일(development work), 관계를 도모하는 일(relationship work) 등이 포함된다.

첫째, 윤리적 일은 아동이 그것을 필요로 하는 만큼 오랫동안 아동에게 안전한 환경을 보장해준다는 서약(committment)의 의미를 지니며, 아동의 욕구와 필요에 반응하기로 선택하는 것이다. 둘째, 관리하는 일은 아동 및 가족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아동이 자신과 타인의 신체·사회정서적 욕구를 보살피도록 발달하고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을 의미한다. 셋째, 발달적 일은, 아동의 건전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지지적인 환경을 유지하고, 시간과 환경에 따른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기 위한 적응적이고 보호적인 노력을 뜻한다. 넷째, 관계를 도모하는 일은 자녀가 주위 사람들에게 애착을 형성할 수 있게 하고, 자녀와 타인간의 이해를 증진시키며, 자녀가 주위 사람들의 욕구를 이해하도록 돕는데 투자되는 노력을 의미한다.

이들은 아버지는 자녀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생산적인 아버지일을 수행해야 할 8가지 책임과 능력(서약, 선택하고/창조, 헌신하고/보살피고, 변화하고/관계를 맺고, 의사소통하는 것)이 있으며, 생산적 일의 4개 영역에 대해 각각 2가지의 책임·능력이 상응한다고 보았다(예: 윤리적인 일-서약과 선택).

또한 Gerson(1997)은 생산적 아버지노릇을 경제적 지원의 제공을 넘어, 완전하고 평등하게 정서적·신체적 양육 활동의 전 영역을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이는 부모됨의 기쁨 뿐 아니라 그 짐까지도 공유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놀이같은 재미있는 일뿐 아니라 청소나 기저귀갈기 같은 일상적이고 지루한 일도 똑같이 참여하며, 양육에 대한 평등한 책임을 지고, 자녀의 복지를 위해 직업과 여가를 희생하는 것과 같은 일을 하는 아버지는 생산적인 아버지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선행연구들을 종합해볼 때,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이란 자녀의 욕구충족과 긍정적인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참여행동과, 자녀와 윤리적·발달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자원과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포함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2. 생산적 아버지노릇의 측정도구

생산성의 맥락에서 아버지노릇을 평가하고자 Snarey(1993)는 자녀의 사회·정서적 발달의 지지 12문항, 지적·학문적 발달의 지지 12문항, 신체·운동적 발달의 지지 12문항으로 구성된 평정 범주를 개발하여 사용하였다.

Palkovitz(1997)는 최근 많이 사용되는 Lamb(1986)의 아버지 참여 모델이 과거보다 진전되기는 했지만 부모 참여에 대한 포괄적인 고려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참여(involve) 개념을 확장·재구조화하였다. 그는 자신의 경험과 부모의 관찰을 통한 질적 자료에 근거하여, 부모가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15가지 주요 범주와 구체적인 목록을 제시하였다: 듣기, 가르치기, 감독 및 지도, 사고과정(자녀에 대한 걱정, 계획...), 심부름,

자녀 돌보기, 자녀와 관련된 일(청소, 요리…), 관심의 공유, 유용성(함께 시간 보내기, 행사 참여…) 계획하기(생일, 휴가, 저축…), 함께하는 활동, 제공하기(의, 식, 주, 의료, 교육…), 애정 표현하기, 보호, 정서적 지지 등. 그가 제시한 범주는 이제까지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진 관찰 가능한 참여 행동의 범주를 넘어서서, 부모의 시간·애정·에너지 등을 투자해야 하는 문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그는 또한 부모참여는 여러 가지 영역, 즉 인지적·정서적·행동적 영역이 포함된다고 제안하고, 이제까지의 경험적 연구에서 행동적 영역 즉 관찰 가능한 행동은 연구에서 자주 다루어져 온 반면 그 외의 영역들 특히 정서적·애정적인 에너지와 투자를 필요로 하는 참여는 잘 다루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사고과정과 인지적 요소를 더 많이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최근 양미경(1998)은 Snarey(1993)의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으나 본격적인 척도개발 연구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생산적 아버지노릇 개념에 근거하여 우리 실정에 알맞은 척도를 개발하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및 절차

본 연구는 전주시에 거주하는 유아기 자녀(3~5세)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전주시 소재 9개 유아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교사에게 연구목적을 설명하고 각 가정에 질문지를 보낸 후 이를 회수하였으며, 일부는 개별 접촉을 통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였다. 1999년 3월~4월에 걸쳐 자료수집이 이루어졌으며, 35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여 200부가 회수되었으나 이중 부실 기재된 질문지를 제외하고 총 188부를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아버지의 연령은 20대가 11명(5.9%), 30-34세 84명(44.9%), 35-39세 67명(35.8%), 40대 25명(13.4%)으로 나타나 30대가 조사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고졸 55명(29.6%), 전문대

졸 18명(9.7%), 대졸 87명(46.8) 대학원졸 26(14.0%)이었고, 아버지 직업은 전문·관리직 50(28.7%), 사무직 47(27%), 판매·서비스직 43(24.7%), 생산운수 및 노무직 34(19.5%)로 비교적 고른 직업분포를 보였다. 가정의 총소득은 100만원 46(24.5%), 100-199만원 84(44.7%), 200-299만원 37(39.7%), 300-399만원 12(6.4%), 400만원 이상 9명(4.8%)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서는 생산적 아버지노릇을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을 위해 아버지 자신의 시간·애정·에너지 등을 투자하는 자발적인 참여행동과, 물질적 자원 및 시간·에너지·심리적 자원을 자녀양육에 투자하고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것을 아버지로서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일로서 간주하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으로 조작적 정의하고, 양육참여와 책임감의 두 개 하위영역으로 측정도구를 구성하였다.

양육참여 영역은 Snarey(1993)가 개발한 36문항, Palkovits(1997)가 부모가 자녀양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한 15가지의 주요 참여 범주, 국내 연구(최경순, 1992; 허신자, 1992)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참고하여 가능한 모든 문항을 추출한 후, 중복되는 문항을 삭제하고 유아기 자녀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문항들을 선택하였다. 양육 책임감 영역은 Dollahite와 동료들(1997)의 이론에 근거하여, 아버지 일의 4개 범주에 상응하는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인, 서약·선택·창조·헌신·보살핌·변화·관계유지·의사소통에 관련된 문항을 직접 만들었으며, Palkovits(1997)의 참여 범주도 일부 참조하여 문항을 구성하였다. 수집된 문항들에 대해서는 해당 연령 아버지와 면담을 통해 문항을 보충하거나 수정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양육참여 37문항, 양육책임감 19개 문항(4)이 최종 선정되었다. 양육참

4) 양육 책임감 19문항은 서약 3문항, 선택 4문항, 창조 2문항, 헌신 2문항, 보살핌 2문항, 변화 2문항, 관계유지 2문항, 의사소통 2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예컨대, 10, 3, 6번 문항은 선택, 12, 7번 문항은 헌신, 16, 9번 문항은 보살핌에 관련된 문항이다(부록 참조).

여는 각 행동에 참여하는 정도를 4점 리커트 척도에 응답하게 하였으며, 책임감은 각 문항에 대한 동의 정도를 5점 척도에 응답하도록 하였다.

3. 자료분석

본 연구 척도의 문항양호도, 구성타당도 및 신뢰도를 살펴보기 위해 SAS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문항양호도 분석을 위해서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의 편포 및 왜도지수, 문항-척도간 상관관계 등을 살펴보고, 척도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요인분석을 하였다(주요인 분석, promax 회전방법). 신뢰도 검증을 위해서는 하위요인별로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한편 생산적 아버지노릇 척도 점수와 관련변수간에 이론적으로 예측된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알아봄으로써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고자 별도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양성적이거나 여성적인 특성의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선행연구 결과(Bem, 1975; Russell, 1978; 김미란, 1985; 박문학, 1989; 이행욱, 1988; 윤종희·이인숙, 1993에서 재인용)에 근거하여, 아버지의 성역할 정체감에 따라 생산적 아버지노릇에 차이가 있는지 일원 분산분석을 수행하였다. 성역할 정체감 측정을 위해 정옥분(1983)이 번안하여 사용한 Bem(1981)의 성역할 측정도구(BSRI; Bem Sex Role Inventory)를 사용하였으며(남성적 특성의 문항 10개, 여성적 특성의 문항 10개, 중성적 특성의 문항 10개), 중앙치 반분법에 의해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 집단으로 분류하였다. 1999년 7. 15~8. 30까지 전주시내 6개 유아교육기관에서 유아의 아버지를 대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229부의 자료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IV. 결 과

1. 문항양호도 및 타당도

1) 양육참여 하위척도

먼저 아버지의 양육참여를 측정하는 37개 문항에

대하여 평균과 표준편차, 문항의 편포 및 왜도지수, 문항-척도간 상관관계 등을 통해 문항의 양호도를 살펴보았다. 문항의 편포 및 왜도가 심한 문항 7개를 제외한 결과 30개 문항이 선별되었으며, 이들 문항들의 문항-척도간 상관계수가 $r=.48\sim.68$ 의 범위로 나타나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표 1〉).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선별된 30개 문항에 대해 요인 구조를 파악하고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요인 분석을 하였다. 먼저, 요인의 수를 결정하기 위해 각 요인의 고유값과 변량비율, scree 검사 결과 등을 고려, 요인의 수를 2, 3으로 변화시켜가면서 요인구조를 살펴본 결과 요인수를 3으로 결정하였을 때 가장 적합하게 문항이 구성되는 것으로 판

〈표 1〉 양육참여 문항양호도

	문항	평균(표준편차)	문항-척도간 상관
요인 I (11문항)	8	2.33(0.91)	0.63
	2	3.24(0.77)	0.61
	6	2.72(0.96)	0.58
	36	2.28(0.99)	0.63
	1	3.42(0.74)	0.52
	30	2.48(0.79)	0.57
	26	2.46(0.83)	0.58
	31	2.08(0.89)	0.55
	12	3.34(0.74)	0.63
	28	3.03(0.97)	0.53
	5	2.97(0.90)	0.50
요인 II (9문항)	20	2.52(0.97)	0.67
	21	3.03(0.87)	0.58
	33	2.84(0.97)	0.61
	37	2.91(0.91)	0.57
	32	3.03(0.84)	0.48
	22	2.66(0.94)	0.59
	23	2.37(0.97)	0.60
	29	1.92(0.97)	0.51
16	2.84(0.92)	0.57	
요인 III (6문항)	15	3.10(0.85)	0.68
	19	2.90(0.90)	0.53
	10	2.64(0.96)	0.58
	35	3.21(0.87)	0.59
	17	3.04(0.82)	0.48
	24	2.59(0.92)	0.52

단되었다. 각 하위요인별로 문항의 의미가 모호하거나 요인 부하량이 낮은 4개 문항을 제외한 후, 26개 문항에 대하여 요인수를 3으로 지정한 후 주요인 분석(사각회전)을 실시하였다(〈표 2〉). 분석결과, 3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85%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요인 부하량은 .29~.81로 나타나 대체로 양호하였다.

요인 I은 자녀와 놀이를 하거나 책을 읽어주고

〈표 2〉 양육참여 요인행렬표

문항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h ²
8	.78			.53
2	.68			.45
6	.53			.42
36	.51			.52
1	.50			.34
30	.48			.39
26	.46			.37
31	.42			.41
12	.39			.37
28	.38			.35
5	.34			.32
20		.69		.54
21		.68		.46
33		.65		.48
37		.57		.49
32		.57		.32
22		.44		.45
23		.41		.50
29		.35		.38
16		.34		.42
15			.81	.63
19			.59	.39
10			.59	.51
35			.53	.41
17			.36	.46
24			.29	.37
고유치	10.45	1.12	0.95	
설명변량	70.7%	7.5%	6.4%	
누가변량	70.7%	78.2%	84.6%	
요인간 상관		요인 I	요인 II	요인 III
	요인 I	1		
	요인 II	.59	1	
	요인 III	.56	.50	1

친구를 사귀도록 기회를 등, 자녀의 인지·사회적 발달을 지지해주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발달적 지지' 요인이라 명명하였다. 이 요인은 전체 변량의 약 71%를 설명하였다. 요인 II는 자녀의 일상적인 생활에 관심을 가지고 지도 감독하는 등의 활동이 포함되어 "돌보기 및 지도"로 명명하였으며, 전체 변량의 8% 정도를 설명하였다. 요인 III은 전체 변량의 6%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자녀와 산책을 하거나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등의 문항이 포함되어 "함께하는 활동"으로 명명하였다.

이상과 같이 문항 양호도와 요인분석을 과정을 거쳐 최종 선택된 아버지 양육참여 척도의 문항수는 총 26개이며, 각 하위요인별로 보면 I요인 11 문항, II요인 9 문항, III요인 6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2) 양육 책임감 하위척도

아버지의 양육 책임감 역시 참여도와 동일한 분석과정을 적용하였다. 윤리적, 관리적, 발달적, 관계도모적인 아버지일의 개념을 적용하여 제작한 총 19개의 문항에 대하여 문항의 평균 및 표준편차, 편포 및 왜도지수, 문항-척도간 상관관계 등을 통해 문항의 양호도를 살펴보았다. 문항의 편포 및 왜도가 큰 5개 문항을 제외하고 14개 문항을 선별하였으며, 이들 문항의 문항-척도간 상관계수($r=.41\sim.72$)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3〉).

문항이 양호하다고 판단된 14개 문항에 대해 주요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요인의 고유값을 살펴본 결과 고유값이 1.0 이상인 요인은 1개로 나타났으나, 전체 문항에 대한 변량비율, scree 검사 및 이론에 근거하여 각 문항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 요인수를 2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었다. 14개 문항에 대한 주요인 분석(사각회전) 결과(〈표 4〉), 요인 부하량은 .43~.69이었으며 2개 요인이 전체 변량의 97%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인 I은 자녀에게 긍정적인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물질적 자원 뿐 아니라 아버지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 및 심리적 지원을 기꺼이 투자하는 문항이 포함되어, '자원 제공자로서의 책임감'이라고 명명

〈표 3〉 양육 책임감 문항양호도

	문항	평균(표준편차)	문항-척도간 상관
요인 I (11문항)	10	3.91(0.97)	0.59
	12	4.07(0.90)	0.72
	7	3.85(0.84)	0.71
	4	4.31(0.87)	0.43
	11	4.07(0.83)	0.63
	14	4.25(0.77)	0.53
	3	3.90(0.93)	0.54
	15	4.05(0.82)	0.59
요인 II (9문항)	6	3.79(0.82)	0.53
	18	3.39(0.75)	0.48
	16	4.20(0.87)	0.65
	19	3.70(0.87)	0.50
	17	3.61(0.68)	0.41
	9	3.04(1.21)	0.41

〈표 4〉 양육 책임감 요인행렬표

문항	요인 I	요인 II	h ²
10	.69		.44
12	.68		.61
7	.64		.58
4	.63		.27
11	.63		.48
14	.49		.37
3	.48		.33
15	.46		.43
6	.44		.36
18		.67	.40
16		.65	.55
19		.60	.34
17		.56	.30
9		.43	.25
고 유 치	5.09	.63	
설명변량	86.1%	10.6%	
누가변량	86.1%	96.7%	
요인간 상관		요인 I	요인 II
	요인 I	1	
	요인 II	.67	1

하였다. 요인 II는 자녀를 기꺼이 돌보고 자녀와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일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이 반영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어, '양육자로서의 책임감'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 선택된 아버지 책임감 척도는 2개요인 1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본 척도와 유의한 관계가 있으리라 예측되는 아버지의 성역할정체감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구성타당도를 살펴보았다. 일원 분산분석 결과, 아버지의 성역할 정체감 유형에 따라 양육참여 및 책임감 하위요인 전체에 걸쳐 유의한 차이가 있

었다(〈표 5〉). 즉 양성성 집단과 여성성 집단이 남성성 집단과 미분화 집단에 비해 양육참여가 높고 책임감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양성적이거나 여성적인 특성의 아버지가 자녀양육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이론적 맥락에서 관련된 외적 변수와 예측된 관계를 밝힘으로써 본 척도의 구성타당도에

〈표 5〉 아버지의 성역할 정체감과 생산적 아버지노릇

집단(N)	양육참여				책임감		
	발달적 지지	돌보기 및 지도	함께하는 활동	전체	자원 제공자로서의 책임감	양육자로서의 책임감	전체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평균
양성성(76)	31.93	26.46	18.72	77.38	29.43	12.87	42.22
여성성(52)	29.98	24.82	18.10	72.84	27.57	12.75	40.28
남성성(58)	27.44	23.27	16.45	67.59	25.74	11.47	37.21
미분화(43)	28.81	23.55	16.77	69.09	26.05	11.79	37.86
F	6.97***	5.28**	5.63***	7.33***	7.09***	6.46***	7.54***

***p<.001 **p<.01

관한 하나의 증거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3. 신뢰도

척도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내적합치도 지수인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이 하위 요인별 α 계수는 .71~.87로 나타나 사회과학에서 수용되는 일반적 수준이 .70인 점을 고려하면,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표 6> 하위요인별 문항수 및 신뢰도계수

하위요인	양육참여		양육 책임감	
	문항수	Cronbach's α	문항수	Cronbach's α
요인 I	11	.87	9	.86
요인 II	9	.85	5	.71
요인 III	6	.80		

V. 요약 및 결론

최근 들어 아버지에 대한 대중적, 학문적 관심의 고조와 함께 아버지의 양육참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지만, 양육참여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에 초점을 둔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좋은 아버지노릇을 이해하고 조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노릇의 개념적 범위를 확장하고자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근거, 이를 실증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에릭슨이 제시한 생산성의 맥락에서 고안된 생산적인 아버지노릇 측정도구들을 중심으로 문항을 수집, 측정도구를 구성하고 아버지와의 면접을 통해 문항을 수정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제작된 척도에 대해 문항양호도와 타당도, 신뢰도 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양육참여 하위척도의 경우 평균과 표준편차, 편포 및 왜도지수, 문항-하위척도간 상관관계 등을 통해 문항양호도를 살펴본 후 30문항을 선별, 이들에 대

한 구성타당도를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선택된 양육참여 문항은 총 26개로, 발달적지지(I 요인) 돌보기 및 지도(II 요인), 함께하는 활동(III)이라는 3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양육책임감 하위척도 역시 양육참여와 마찬가지로의 분석과정을 적용하여 총 14개 문항으로 구성된 척도가 개발되었는데, 여기에는 자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I 요인)과 양육자로서의 책임감(II 요인)이 포함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의 구성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본 척도와 Bem의 성역할 측정 도구(BSRI)와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유의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본 척도의 타당성을 지지하였다. 신뢰도 검증을 위해 각 하위요인별로 Cronbach의 α 계수를 산출한 결과, α 계수가 .71~.87의 범위로 나타나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본 연구에서 개발된 척도는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 연구는 전주지역 일부 아버지를 대상으로 유의표집했으며 표본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점 등 제한점이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는 후속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한편 본 척도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개발되었는데,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과 양육참여가 변화될 수 있으므로 자녀의 발달단계에 따른 척도가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그간 아버지-자녀연구에서는 양육참여의 양이 자녀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해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아동발달에 미치는 아버지의 영향은 양보다는 질적인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이 일치되고 있다. 본 연구는 행동 뿐 아니라 심리적 지지 등 보다 넓은 범위의 양육참여 행동과 아버지로서의 책임감을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여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을 측정하고자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추후로 심도깊은 이론적 논의와 함께 후속연구를 통해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가 검토·개선되고, 생산적인 아버지노릇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1) 김광웅 · 이인수(1998). 아버지의 양육 참여도와 유아의 사회정서적 능력. 아동학회지, 19(2), 65-75.
- 2) 김희주(1997). 아버지 자녀양육 참여도 및 양육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 양득주(1988).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도와 취학 전 아동의 성특성 고정관념과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4) 양미경(1998). 아버지의 자녀양육 생산성과 3세 유아-아버지간 애착 안정성과의 관계. 상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윤중희 · 이인숙(1993). 부모의 성역할유형, 부부간 권력유형과 아버지의 유아기 자녀양육 참여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1(1), 191-202.
- 6) 이현숙(1991). 아버지의 자녀양육참여도와 아동의 학업성취도와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7) 이화진, (1992). 아버지의 역할수행에 관한 연구-결혼만족도와 직업만족도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논문.
- 8) 정현희 ·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참여행동과 아동이 친사회적 도덕판단 능력. 아동학회지, 13(1), 38-51.
- 9) 정현희 · 최경순(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아동의 성역할, 정서반응,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16(1), 33-47.
- 10) 최경순(1992). 아버지의 양육행동 및 참여도와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1) 최경순 · 정현희(1995). 아버지의 양육참여와 유아의 역할수용능력 및 친사회적 행동과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3(1), 125-139.
- 12) 허선자(1992). 아버지의 역할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3) 황길현(1997).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의 역할 수행과 참여정도에 관한 인식도 조사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4) Dollahite D.C., Hawkins, A.J., & Brotherson, S.E.(1997). Fatherwork: a conceptual ethic of fathering as generative work. In Hawkins, A.J. & Dollahite, D.C.(Eds), Generative fathering. Sage Publication.
- 15) Gerson, K.(1997). An institutional perspective of generative fathering; creating social support for parenting equality. In Hawkins, A.J. & Dollahite D.C.(Eds), Generative fathering. Sage Publication.
- 16) Hawkins, A.J. & Dollahite, D.C.(1997). Beyond the role-inadequacy perspective of fathering. In Hawkins, A.J. & Dollahite, D. C.(Eds), Generative fathering. Sage Publication.
- 17) Palkovitz, R.(1997). Reconstructing "involvement": expanding conceptualizations of men's caring in contemporary families. In Hawkins, A.J. & Dollahite D.C.(Eds), Generative fathering. Sage Publication.
- 18) Snarey, J. (1993). How fathers care for the next generation: a four-decade study. Harvard University Press.

부 록

< 양육참여 하위척도 >

1요인 : 발달적 지지

1. 자녀와 만들거나 종이접기와 같은 놀이를 한다 (8)5)
2. 자녀가 문제를 해결하도록 도와준다(2)
3. 자녀의 연령에 적합한 장난감이나 책을 마련해 준다(6)
4. 자녀교육과 관련된 책을 읽거나 방송을 보고 듣는다(36)
5.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1)
6. 자녀와 블록놀이나 글자놀이를 한다(31)
7. 자녀에게 책을 읽어준다(26)
8. 자녀가 친구를 사귀도록 기회를 만든다(31)
9. 자녀가 궁금해하는 것을 잘 설명해 준다(12)
10. 자녀의 생일이 특별한 날이 되도록 해 준다(28)
11. 자녀와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장단을 맞추어 논다(5)

2요인 : 돌보기 및 지도

1. 자녀의 옷차림을 돌보아 준다(20)
2. 자녀가 잘 자고 있는지 확인해 본다(21)
3. 자녀가 좋아하는 놀이나 TV프로그램에 관심을 갖는다(33)
4. 자녀의 기본생활습관(이닦기, 정리정돈 등)을 가르친다(37)
5. 자녀가 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지도한다(32)
6. 자녀가 친구와 어떻게 지내는지 관심을 갖는다 (22)
7. 자녀와 함께 장난감을 정리한다(23)
8. 자녀를 위해 음식을 준비한다(29)
9. 자녀에게 하루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물어본다 (16)

3요인 : 함께하는 활동

1. 자녀와 산책이나 드라이브를 한다(15)
2. 자녀를 공원이나 동물원, 박물관에 데리고 간다 (19)

3. 자녀와 함께 옷이나 장난감을 사러 간다(10)
4. 주말이나 휴일에는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35)
5. 자녀가 새로운 기술(예: 자전거 타기)을 배우도록 도와준다(17)
6. 자녀와 공놀이나 신체놀이를 한다(24)

<양육 책임감 하위척도 >

1요인 : 자원제공자로서의 책임감

나는 아버지로서,

1. 자녀를 위해 불편하더라도 거주지를 옮길 수 있다(10)
2. 다른 무엇보다 자녀와의 관계에 가장 의미를 둔다(12)
3. 자녀를 위해 시간과 에너지를 가능한 많이 투자한다(7)
4. 자녀의 미래를 위해 최소한의 경제적 준비(예를 들면 저축이나 보험 등)를 하고 있다(4)
5. 자녀의 성장에 따라 변화하는 부모 역할에 적응한다(11)
6. 나의 모든 행동이 자녀에게 모범이 되도록 노력한다(14)
7.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원하는 일을 미루거나 포기할 수도 있다(3)
8. 자녀의 관심과 흥미가 무엇인지 알고 지지해 준다(15)
9. 자녀를 위해서 근무시간을 조절할 수 있다(6)

2요인 : 양육자로서의 책임감

나는 아버지로서,

1. 자녀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려고 노력한다(18)
2. 기꺼이 자녀를 돌보아 주려고 한다(16)
3. 아이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 주거나 함께 놀아주고자 한다(19)
4. 자녀를 자주 안아주는 등 애정표현을 하고자 한다(17)
5. 다른 사람의 도움없이 혼자서 자녀를 돌보는 경우가 많다(9)

5) () 안의 번호는 질문지번호임